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헬컴 투 시월드(재)	00 특집 KBS 뉴스광장 18대 대통령 취임	00 국토민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강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00 채널A 아침뉴스 특집다큐 박근혜, 희망을 쓰다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30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1~2부	00 중계방송 18대 대통령 취임식	00 TV 소설 <삼성이> 40 여유만만	00 18대 대통령 취임식	10 18대 대통령 취임식 1~2부
10		50 지구촌 뉴스		
11		10 KBS포스트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재)		
12 30 박근혜 대통령 취임 특집 뉴스현장				50 SBS 뉴스
1 30 박근혜 대통령 취임 특집 김광현의 팀팅평평	30 특집좌담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무엇을 담았나			
2 30 헬컴 투 시월드(재)	30 KBS 스페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10 세계는 지금(재)	00 통일전망대 40 포토에세이 골목	00 KBC 열린토론회(재)
3 40 이연경의 직언직설	30 100년의 가계(재)	00 오강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재)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울산>
4 50 박중진의 페도난마 박근혜 정부 출범 기념 공개방송	00 KBS 오늘의 경제 10 알코르 특선다큐 <프로즌 플래닛 6편>(재)	00 외골와글 꼬꼬맘(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즈아 30 CSI 과학수시대	00 아이엠 몽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구름방 30 100년의 가계(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20 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부 1~2부	20 신나군	
7 30 헬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7 10 하니되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취임 축하음악회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지말이 건디>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40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 김>	20 오강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위기탈출 넘버원	50 이야기 속 이야기 <사사년>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날씨와 생활 50 생활의 달인
9 50 채널A 종합뉴스	00 특집 KBS 뉴스9 18대 대통령 취임		55 창사 51주년 특별기획 <마의>	
10	00 가요무대	00 월화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00 월화드라마 <아랑>
11 00 특별기획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박근혜정부 출범 특별좌담 국민 행복의 조건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감다큐 <그곳>	1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박중진의 페도난마(재) ①:30 제복이 아름다운 당신(재)	30 KBS 뉴스 40 네트워킹 문화특선 <이한철의 율령유지>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특별기획드라마 <초한지>	35 MBC 뉴스24 ①:05 특집 다큐멘터리 휴먼로드 지구촌 사람들	30 나이트 라인 ①:00 다큐로 만나는 세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 5주년 김상중

“신뢰가는 배우 이미지는 프로그램 덕분”

매주 토요일 밤 11시 5분, 이 익숙한 배우는 TV 속 연기자의 가면을 벗는다. 그는 어느새 트레이드 마크가 된 ‘그런데 말입니다’라는 한 마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각종 폐부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쏜다.

바로 SBS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배우 김상중(48)이다.

2008년 3월1일 전임 진행자 박상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아 ‘순대론 미스터리 - 그레도 남는 의혹의 실체’ 편부터 출연한 그는 내달 1일 어느덧 진행 5주년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목동 SBS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제가 보여주는 모습에 신뢰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신뢰감이 쌓인 거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나름의 책임감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김상중은 그동안 ‘추적자’ ‘시티헌터’ 등의 작품을 통해 절대 가법지 않은 배역을 소화해왔다. 자연스레 대중도 그를 안정감 있고, 신뢰 가는 배우로 바라봤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가 구축됐다고 그 공을 프로그램에 남겼다.

“배우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점 이요? 시사 프로그램은 무겁다고들 생각하 시잖아요. 사안의 무게는 아이টে에 따라 달 라지는 데, 배우는 감정 변화 등을 가지고 상 황과 아이টে에 따라 전달력의 차이를 들 수 있어요.”

김상중은 지난 5년 동안 200개가 넘는 사

간·사고를 다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 드는 무엇일까.

“누구나 처음 한 경험이 기억에 남듯이, 순대론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때만 해도 ‘국치’라며 앞에서 통곡했지만 시간이 지나 순대론이 어떻게 복원되는지에 대해서는 관 심들이 없어졌죠. 우리는 너무 잘 울고, 빨리 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편, 김상중은 평소 드라마와 ‘그것이 알 고 싶다’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지난해 SBS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연예대상’에 서는 뜻밖의 예능감을 마음껏 뽐냈다. 특히 ‘연예대상’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 콘셉트로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생방송 코너 를 소화해 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사람이

만, 무겁고 진지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장에서 재미있게 비치고,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흡족합니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의 모토는 ‘두드 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 ‘두드러다’ 보면, 사회의 부조리도 어느 순간 해결될 수 있다는 바람에서다.

“프로그램을 5년 진행했다고 해서 소감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민망해요. 더 해야죠. 한 10년은 해야 이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 경력과 노후가 짧아지고, PD나 작가가 해주는 것 말고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제 이름을 프로그램 제목에 붙여도 될 것 같습 니다.”

—연필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5일(음 1월 16일 壬戌)

子 36년생 영근 실타래가 풀리는 모습이다. 48년생 상대를 존중하면 자신도 우대받는다. 60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겠다. 72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자. 84년생 음양의 조화가 이채롭다. 행운의 숫자 : 18, 38	午 42년생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54년생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임시방편적 이라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78년생 실수한다면 주변에까지 피해가 가리다. 행운의 숫자 : 44, 92
丑 37년생 허심탄화하게 대화한 시비를 면한다. 49년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61년생 안일함에서 벗어나야도 약할 수 있다. 73년생 배려를 하다 보면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85년생 참는 것이 곧 덕이다. 행운의 숫자 : 62, 22	未 4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55년생 아주 기본 일이 생기는 모습이다. 67년생 끝까지 예의를 지킨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 질 것이다. 79년생 단순한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군더더기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3, 88
寅 38년생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끝없는 탐욕이야말로 화를 부르는 근원이다. 62년생 타당성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74년생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1, 68	申 44년생 잘 정리하고 단정해 보자. 56년생 상대의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었다. 68년생 연락이 두절되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올 수다. 8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08
卯 39년생 개념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느니라. 51년생 겸손하다면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63년생 순간적인 오관을 할 소지가 있다. 75년생 이해관계에만 민감하다면 건조해지는 사이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2, 26	酉 45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니라. 57년생 단순하거나 무리한다면 크게 손해 볼 수도 있다. 69년생 일반적으로 처리한다면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기라. 81년생 자세히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97
辰 40년생 도리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 52년생 샘은 분명히 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64년생 첨예한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76년생 걱정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0, 34	戌 46년생 기탄없이 행하라. 58년생 고난의 행로는 미래를 여는 훈련장이 되리라. 70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했으나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82년생 걱정을 지배하지 않으면 걱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83
巳 41년생 선행이 쌓인다면 복을 받게 되느니라. 53년생 여러 사람의 시선 집중을 받을 수도 있다. 65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된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7년생 문제가 발생하였다. 행운의 숫자 : 76, 81	亥 47년생 사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71년생 옛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83년생 세과의 흔적이 역력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6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건강한 아침	09:40 팀가탈가 이야기	15:45 마야의 모험	19:30 달라졌어요
06:10 한국기행	10:10 세계대기행	16:00 덩동덩 유치원 1~2(재)	20:20 요리비전
06:30 나의 성공비결	<인도차이나 불천지 베타브>	16:20 케니멀	20:50 세계대기행
07:00 나의 모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30 뽀뽀뽀 뽀로로(재)	<행복의 비밀 니카라과 1부 -축제의 땅, 디리암바>
07:15 꼬마거북 프랭클린	11:20 부모 <육아 리모텔링>	16:45 숲 속 친구 파파플라(재)	21:30 한국기행
07:30 마이의 모험	-이틀 버뮤는 영미의 말 한디	17:00 방귀대장 뽀뽀(재)	<백두대간 1부 -겨울을 보내며 소백산>
07:45 뽀뽀뽀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7:10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2:10 EBS 다크프라임	17:2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학교 폭력 -4부 교실평화 프로젝트 중고등편>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3:05 EBS 스포츠 공감 1	17:4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1~4	22:45 하늘에서 본 한반도
08:35 로보카 폴리	14:05 영어유치원 요! 가비가비	18:30 큰	23:15 다크10+
08:50 숲 속 친구 파파플라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45 미앤마이 로봇	24:05 밴드 오브 브라더스
09:00 방귀대장 뽀뽀	15:00 꼬마기사 마이크	19:00 EBS 뉴스	
09:15 코요롱2	15:10 콩콩짜짜 리라	19:20 EBS 진중기획	
09:30 케니멀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9:25 지식채널e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1:40 " <강습회의 윤리와 사상>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내용 탐남 <국어 3-1>
00:50 내신 6급	<수학(상)>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7:30 EBS 생방송 영어	15:50 " <국어 4-1>
01:40 " <지리>	13:00 탐사선 <박복의 사회문화>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1>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14:00 수능기출플러스 <독사>	08:30 검정고시 교육강좌	16:40 " <국어 6-1>
03:20 " <독사와 문법>	15:00 " <문학>	09:10 TV중학 <국어①>	17:20 초등 개념 집기(수학)
04:10 " <수학 I A형>	16:00 " <수학 II & 적통 & 기법>	09:50 " <수학(이상)>	18:00 중학 학습비법 특강 <수학②(상)>
05:00 " <수학 I B형>	17:00 " <영어-독해편>	10:30 이야기 수학사	18:40 " <사회>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18:00 EBS 수능특강 <국어A형>	11:10 TV중학 <사회①>	19:20 한지교육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19:00 " <국어B형>	11:50 TV중학 2학년 <영어①-2>	20:00 나의 첫 번째 영어쓰기 노트 <수학3-1>
07:30 " <Basic Grammar>	21:00 " <영어B형>	12:30 " <문학2>	22:40 TV중학 3학년 <국어3-1>
08:20 탐사선 <법과 정치>	22:00 " <영어A형>	13:20 동물일기	23:20 " <문학3>
09:10 " <동아시아사>	23:00 " <울리 I>	13:50 키득키득 실험실	24:00 EBS 생방송(재)
10:00 " <경제>	23:50 지식채널e <적분과 통계>	14:00 직장학 개론	
10:50 " <강릉군의 한국지리>	23:55 배움나더 <세계의 교육현장>	14:40 세계의 교육현장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요우 니혼고
How does the sky look? 날씨가 어떨니?	殘杯冷炙(잔배냉적) 남을 잔, 잔 배, 찰 랭, 구울 적	敲竹杠 qiāo zhú gàng 대나무 가지를 두드리면 돈이 나온다?	英語はまったく駄目なんです。 영어는 전혀 못합니다
A : How does the sky look? B : It looks like rain, I'm afraid. Maybe we should call off our meeting. A : Yes, I suppose it can't be helped. B : Maybe we can plan it again for next week.	잔배냉적(殘杯冷炙)은 마시다 남은 술과 다 식은 구운 고기 라는 뜻으로, 약속하고 보잘것없는 주안상으로 푸대접받는 것을 말한다. '아침에는 부자집 문을 두드리고, 저녁에 고관의 말을 뒤쫓는다. 마시다 남은 술잔과 식은 안주 조각 얻어먹으며, 도처에 슬 픔과 아픈 가슴 사무쳤거늘.' 당시 당(唐)나라의 조정은, 원이 넘은 현종(玄宗)이 양귀비(楊貴妃)와 유연(遊宴)을 일삼던 쇠퇴의 시기로, 간신 이일보(李林甫)가 재상으로서 권세를 휘둘렀다. 그는 과거로 등용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종의 명으로 과거를 열기를 했으나 재야에는 현명한 자가 없다고 하여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않았다. 이때 두보(杜甫)도 좌절하여, 장안을 떠나기에 앞서 평소 애 자기를 후원해 주던 위제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여 바친 시 이다.	'敲'는 '두드리다'라는 의미이고, '竹杠'는 '대나무 통'을 말합니다. '敲竹杠'을 그대로 놓고 보면 '대나무를 두드리 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게 우리말로로는 어떤 구실로 다 른 이에게 돈을 내게 하는 의미로 '바가지 씌우다' 정도 되겠네요. 꺼리를 찾아내어 한턱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아편전쟁시기 국가에서 아편을 엄금했으 나 몰래 배에 숨겨 들어오며,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대나 무였습니다. 관원들이 배안을 검사하면서 괜히 대나무 통 을 두드리면 여기 안에 아편이 있는 줄 알고 있다는 표 시로 인식되어 눈감아 달라며 돈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유래하여 '대나무를 두드리다'는 '敲竹杠 qiāo zhú gàng'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빌미로 하여 돈을 뜯어 낼 때 쓰는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A : 金さんは日本語を話すことができますか。 B : 上手じゃないけど、少し話すことができます。 A : そうですか。 英語の方はどうですか B : 英語はまったく駄目なんです。 A : 김 상은 일본어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B : 능숙하지는 않지만 조금 말 할 수 있습니다. A : 그렇습니까. 영어 쪽은 어떻게습니까. B : 영어는 전혀 못합니다.
<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